【논문】

인식적 비합리성의 이행

김 기 현

【주제분류】 분석철학, 인식론
【주요어】 인식적 합리성, 탐구, 믿음, 증거주의, 과정주의
【요약문】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인식적 합리성의 논의는 믿음에 제한되며, 더 나아가 믿음의 합리성은 그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은 믿음뿐 아니라 믿음을 산출하는 탐구에 대하여도 인식적 합리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필자의 다른 논문의 논의를 발전시켜, 탐구의 합리성이 그 결과로 산출되는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증을 제시한다. 탐구가 비합리적일 경우에 그 결과물로서의 믿음도 비합리적이게 된다는 것이 논증의 요지를 구성한다. 이는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을 모든 통시적인 고려로부터 독립하여 정의한 전통적 견해, 그 중에서도 증거주의를 논박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Ⅰ.

우리는 일정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한다. 증거들이 수집되면 이에 비추어 어떤 명제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려하기도 하고, 또는 일정한 명제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인식적 탐구는 이렇듯 여러 단계에 거쳐 일어나는 작업이며, 매 단계마다 우리는 관련된 인식적 행위가 적절한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인식론은 이러한 과정의 마

지막 단계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으며, 인식적 합리성의 문제도 마지막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인식적 합리성의 문제란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인가의 문제와 다름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대한 답은 주어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 명제가 참일 개연성이 높은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믿음뿐 아니라 인식적 탐구 자체도 인식적 합리성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1]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실천적 합리성에 대한 잘 알려진 기대효용 이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초래하는 유용성이 더 높은 행위가 선택가능한 범위에 있을 때, 결과적 유용성이 더 낮은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비합리적이다. 필자는 이러한 실천적 합리성의 구조로부터의 유비를 통하여, 결과적인 인식적 가치(진리의 양)가 더 높은 탐구가 선택가능한 범위에 있을 때, 그 보다 낮은 인식적 가치를 초래하는 탐구를 행하는 것은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으로부터 위 주장을 옹호하였다.

Ⅱ.

앞서의 논문에서 필자가 전개한 논의는 믿음에 국한되었던 인식적 합리성 평가의 외연을 탐구에까지 확장시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탐구에도 인식적 합리성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 탐구의 합리성과 그 결과적인 믿음의 합리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침묵하였다. 필자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양자를 연결시키는 한 논제를 제시하고 이를 옹호하고자 한다. 그 논제는 다음과 같다:

S의 믿음 p가 I라는 탐구의 결과일 때, 믿음 p는 탐구 I가 인식적으

1) 김기현(2007)

로 합리적일 경우에만 인식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믿음 p를 산출한 탐구 I의 인식적 합리성이 믿음 p의 인식적 합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를 대우(contraposition)로 표현하면,

S의 믿음 p가 I라는 탐구의 결과일 때, 탐구 I가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면, 믿음 p도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다. (탐구 I의 인식적 비합리성은 믿음 p의 인식적 비합리성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위 주장이 갖는 직관적 설득력은 어렵지 않게 논증할 수 있다. 탐구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일정한 믿음에 도달하여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한 인식적 탐구가 합리적이라 함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한 탐구가 비합리적이라 함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답을 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함축한다. 이 말은 비합리적 탐구의 결과로 얻어진 믿음은 비합리적임을 함축한다.

위에서 나타나는 직관적 설득력은 다시 탐구의 지속 또는 중단과 관련된 인식적 의무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한 인식적 탐구가 비합리적인 이유는 더 훌륭한 인식적 결과를 낳는 다른 탐구가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탐구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임을 주목하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탐구가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라 함은 다른 더 생산적인 대안적 탐구가 있으므로 그 덜 생산적인 탐구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함축한다. 즉, 그 탐구를 중단하고 더 생산적인 대안적인 탐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다시 앞서의 탐구를 지속하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함축한다. 탐구를 지속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면, 그 탐구를 지속하여 일정한 믿음을 구성하는 것 역시 비합리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Ⅲ.

내가 앞 절에서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비합리성 이행의 원리로 요약될 수 있다.

비합리성 이행 원리

만약 한 탐구가 비합리적이라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믿음도 비합리적이다.

위 원리는 직관적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입장, 즉 한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은 그 믿음과 관련된 증거에 따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견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려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부터는 이러한 반론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반론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위 원리를 논증적으로 옹호하고자 한다.

위의 비합리성 이행 원리에 대한 첫째 반론은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은 순수하게 진리연관성의 함수라는 전통적 견해 자체로부터 출발한다. 이 반론에 따르면, 한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은 현재 주어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참일 개연성이 높은가에 의존할 뿐, 그런 증거 수집을 시작하게 한 탐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 배경은 어떠한지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을 전적으로 증거에 비춘 진리연관성의 문제로 파악하는 이러한 견해는 매우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라고 부를 수 있다. 비록 내가 실제로 수행한 탐구보다도 훨씬 우월한 진리를 산출할 탐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탐구의 결과 나의 믿음을 지지할 충분하고도 훌륭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그 증거에 비추어 나의 믿음은 인식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필자의 논증에 대하여 논점을 선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미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하였

다. 우선 필자는 한 탐구에 대하여 인식적 합리성의 평가가 행하여질 수 있으며, 이 평가는 인식 주관에게 주어진 선택 가능한 인식적 탐구들 사이의 비교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을 앞서의 논문에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필자는 위와 같이 결정된 탐구의 인식적 합리성 여부가 그 결과로 형성되는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앞 절에서 주장하였다. 이 두 논증을 결합될 때 구성되는 당연한 귀결은 비록 한 믿음이 탐구의 결과 증거에 의하여 훌륭히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그 탐구 자체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한 결과적으로 산출된 믿음이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필자는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도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증은 전통적 견해에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이며,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젖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논증을 통하여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도전하는 시도에 대하여, 그저 전통적 견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논증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는 논점 선취의 오류일 뿐이다. 필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식적 합리성 개념이 탐구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보이거나 (이 주제는 앞선 논문의 주제이며, 거기서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이미 충분히 논의하였다), 아니면 인식적 합리성이 필자의 이행 원리에서 제시되는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적극적 논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저 인식적 합리성이 진리의 함수라는 전통적 견해에 의존하여 별도의 논증 없이 필자의 논증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행원리에 대한 둘째 반론은 바로 이행원리를 부정하는 적극적 논거를 제시한다. 이 반론은 우선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에 선행하는 탐구의 과정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일단 두 과정이 구분되면, 그들에 대한 평가도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추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 사건 또는 과정이 다른 사건 또는 과정을 야기하게 될 경우, 이들의 관계는 단지 인과관

계일 뿐이다. 평가적 성질은 그런 인과관계를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 한 과정이 비록 결함투성이인 다른 과정에 의하여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는 결함 없이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도처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포식자는 자신의 먹이를 선택함에 있어 실수를 할 수 있다. 같은 노력으로 노루를 쉽게 잡을 수 있음에도 토끼를 사냥감으로 선택한다면, 이는 사냥감 선택에 있어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포식자가 토끼를 잡는 과정 자체는 아무런 결함 없이 완벽할 수 있다.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볼 수 있다.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약속이 행하여진 이후에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 구속력을 가지는, 즉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2] 이러한 예들에서 우리는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구분되는 두 사건이 각기 독립적인 윤리적 평가를 받는 유형을 볼 수 있다. 나의 논증에 대한 반론의 요지는 탐구와 결과적인 믿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3]

위의 반론은 일종의 유비 논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유비 논증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유비가 나의 논증에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탐구와 그 결과 산출되는 믿음 사이의 관계는 약속을 하는 행위와 약속을 지키는 행위 사이의 관계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가 아닌가의 여부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각각의 의도와 실행규칙을 갖는 별개의 구분되는 행위다. 그러나 탐구와 그 결과로 생겨나는 인식적 태도 사이의 관계는 그와 달리 양자가 독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인식적 태도는 탐구와 독립적인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탐구라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탐구의 결과로 인식 주체

---

2) Smith (1997).

3) Alvin Goldman 교수가 이런 논점을 지적한 것에 감사한다.

는 믿음, 부인, 또는 판단중지와 같은 인식적 태도에 도달한다. 한 탐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종 단계의 인식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P라는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하자. 이제 관련된 증거를 수집한 후에 이 사람이 p 명제에 대한 아무런 인식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우리는 무어라고 할 것인가? 이 경우에 우리는 탐구는 완결되었지만, p에 대한 인식적 태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탐구가 아직 p에 관련된 인식적 태도를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가? 후자의 대답이 직관적인 설득력을 갖는다. 나는 p라는 명제에 대한 탐구를 완결하였지만, 그에 대한 어떤 인식적 태도(믿거나, 부정하거나, 판단을 중지하거나)도 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면에, 나는 일정한 약속을 확실히 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킬지, 어길지, 질질 끌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포식자가 먹이를 선택하는 행위와 포식자를 포획하는 행위는 각자의 의도와 행동을 독립적으로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가 먹이를 선택하는 과정이 완성된 후에도, 포식자가 먹이를 어떻게 포획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아니며, 먹이를 포획하는 과정은 먹이를 선택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아니다. 반면에 믿음과 같은 특정한 인식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탐구라는 과정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 사이의 관계와의 유비를 통하여, 탐구에 대한 인식적 평가가 그 결과적인 인식적 태도에 대한 평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심각한 결함을 갖는다. 믿음이 선행하는 탐구로부터 구분된다는 것이 이행성 원리를 반대하는 비판자의 주된 근거인데, 이 근거가 희박하므로 유비 논증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 원리에 대한 비판 자체가 설득력을 잃는다.

Ⅳ.

지금까지 우리는 탐구에 대하여 인식적 합리성의 평가가 적용될 수 있으며, 탐구가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일 때에는 결과적인 믿음도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 되는 방식으로 탐구가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았다. 이 입장에 따르면, 한 믿음이 어떤 탐구를 거쳐 발생하였는가가 그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종류의 견해는 흔히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발생적 견해 또는 통시적 견해로 분류된다. 이는 이 견해가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공시적 견해와 대비됨을 의미한다.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공시적 견해는 전통적 인식론의 주류를 이루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현재의 마음 상태의 함수이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현재 이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과 무관하다.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공시적 견해를 옹호한다는 것이 탐구에 아무런 인식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관여된 행위들 중에서는 인식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비난할 만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만을 부당하게 수집하는 형사가 있다고 하자. 비록 결과적으로 얻어진 증거가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라도, 이 경우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무언가 개탄할 만큼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과거의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의 결함이 현재 그가 갖고 있는 믿음 자체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믿음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과거의 인식적으로 비판받을 행위의 결과이므로 현재 적절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인식적으로 비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4] 펠드만은 전통적 증거주의가 전자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명백히 주장한다.[5]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증거주의는 통시적 합리성에 대한 견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증거주의는 어떤 순간에서든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갖고 있는 증거를 따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정 시간에 걸쳐 어떤 탐구를 수행할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6]

증거주의로 대표되는 통시적 견해는 한 믿음과 관련된 현재 시점에서의 증거적 상황이 그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을 위한 한 필요조건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모든 것임을 주장한다는 것에 주목하자.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필자의 견해는 이러한 배타적으로 공시적인 성향을 갖는 증거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글의 논지에 따르면, 인식적 합리성은 통시적 과정인 인식적 탐구에 대하여 적용될 뿐 아니라, 탐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식적 합리성의 평가가 그 결과적인 믿음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전 논문에서의 주장처럼 인식적 합리성의 평가가 믿음뿐 아니라 탐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공시적 견해를 옹호하는 전통적 증거주의자는 자신의 주장은 탐구가 아닌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에 관한 견해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우 인식적 합리성은 전적으로 현재의 증거적 상황에 의존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주장은 이러한 도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탐구의 비합리성이 믿음의 비합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믿음의 합리성 조차도 통시적인 영향권 하에 있다는 주

---

4) Hall and Johnson (1998): 129-40.

5) 순수하게 증거주의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 필자는 '증거주의'라는 표현이 공시적 견해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을 증거 수집과 증거적 지지라는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하는 견해도 증거주의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믿음의 합리성은 모두 증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거주의가 합리성에 대한 공시적 견해와 동일시 되는 것은 인식적 합리성을 믿음의 발생과 연관하여 규정하는 과정주의(Goldman, 1979)와 대립되는 견해로 규정되어 왔다는 역사적 맥락에 의존한다. (Feldman and Conee, 1985)

6) Feldman (2000), 689.

장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논지가 갖는 논증적 상황을 반대편에서 설명해보자. 이 글의 주장은 진리와 연관된 어떤 공시적 증거적 상황이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나의 증거 상황과 관련된 어떤 조건이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논증은 이런 필요조건이 충분조건으로 강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탐구가 인식적 합리성을 갖는가가 결과적인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을 선행하는 탐구의 성격과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히 인식적 합리성에 대한 통시적 접근으로 공시적 견해와 화합할 수 없다.

투 고 일: 2009. 10. 05.
심사완료일: 2009. 11. 05.
게재확정일: 2009. 11. 19.

김기현
서울대학교

참고문헌

김기현, 「인식적 합리성의 통시성: 증거주의 비판」, 『철학적 분석』 (2007년 봄): 19-36.

Feldman, Richard and Earl Conee. (1985), Evidentialism. *Philosophical Studies* 48: 15-34.

Feldman, Richard. (2000), Ethics of Belief,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0: 667-695.

Feldman, Richard. (2002), Epistemological Duties, in Moser (2002).

Goldman, Alvin (1979), What is Justified Belief? in Pappas (1979).

Hall, Richard and Johnson, Charles. (1998), The Epistemic Duty to Seek More Evidenc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5: 129-140.

Moser, Paul. (2002), *The Oxford Handbook of Epistem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appas, George ed. (1979), *Justification and Knowledge*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Smith, Holly. (1997), A Paradox of Promising, *The Philosophical Review* 106: 153-196.

ABSTRACT

Transmission of Epistemic Irrationality

Kim, Ki-Hye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epistemic rationality, the concept of epistemic rationality applies exclusively to beliefs, and the epistemic rationality of a belief is determined exclusively by the evidential profile of the belief. This paper extends the author's previously published argument that not only beliefs but also inquiries can be the target of an assessment of epistemic rationality. I claim that, when an inquiry is epistemically irrational, it makes the consequent beliefs irrational. If my argument succeeds,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epistemic rationality, especially evidentialism, which defines the epistemic rationality of a belief purely in terms of its evidential profile, cannot stand.

Keywords: Epistemic Rationality, Inquiry, Belief, Evidentialism, Processism